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6 | Vol. 270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예수재는 죽은 후에 행할 불사를 생전에 미리 닦는 재를 말합니다. 즉, 중생이 살아 있을 때 사후를 위하여 미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왕생극락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드는 해에 지내는데 올해에는 윤5월이 들어 법왕사에서는 여법한 예수재를 봉행하려고 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쌓아 사후 왕생극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5월 31일(음, 5월 6일)
- 동 참 금 : 설판 대시주자 20만원
- 영가천도금 : 위패 1위당 5천원
- 회 향 : 7월 18일(음, 윤5월 25일)
- 생전예수재 : 1인당 3만원

▶▶ 49재 일정표

재일	일자	재일	일자
입재	5월 31일 (음, 5월 6일)	사재	6월 27일 (음, 윤5월 4일)
초재	6월 6일 (음, 5월 12일)	오재	7월 4일 (음, 윤5월 14일)
이재	6월 13일 (음, 5월 19일)	육재	7월 11일 (음, 5월 18일)
삼재	6월 20일 (음, 5월 26일)	막재	7월 18일 (음, 윤5월 25일)



Vol. 270호



04 깨침의 향기

맑은 생각하면 삶도 밝아진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6 비슬산방

백고좌법회를 다시 생각하며 · 실상 주지스님

08 법왕논단

어제 없는 오늘 없고 과거 없는 미래 없다 · 본원스님

12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3)

뜻밖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16 불교의 보살들

뛰어난 공덕으로 중생들에게 희망 주다

20 특집 | 화보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22 해오름 요양원 이모저모

사회복지사의 고민 · 이상혁

치매예방 프로그램 · 서동남

노인학대 예방 Q&A

26 법왕사소식

28 법왕사게시판

33 해오름소식

37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6월 01일 발행 | 통권_270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묘도, 영일, 상철, 자행, 자운,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밝은 생각하면 삶도 밝아진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옛날 어느 고을에 소문난 효자와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효자의 하루 일상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자 효자는 군불을 지피고 방을 뜨끈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모를 냉골에서 주무시게 놔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효자는 군불을 다 켜 뒤 부모님의 침구(寢具)를 잘 깔아서 방 기운과 이불 속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칩니다. 그런데 효자는 그것도 부족하여 부모님이 잠자리에 드실 시간이 되면 옷을 벗고 미리 이불 속에 들어가 자기의 체온으로 침구를 따스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효자 아들 덕분에 부모님은 잠자리에 들 때부터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금세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효자의 부모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다”며 칭찬하느라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불효자는 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효자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많이 불려놓았습니다. 나름대로 부모님 봉양에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친구가 효자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은근히 질투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불효자는 늘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효자의 행동이 궁금해 어느날 그 집에 몰래 숨어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저 친구와 똑 같이 하면 나도 곧 효자라는 소문이 나겠지.’ 숨을 죽이고 하루 종일 효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효자의 행동을 살핀 불효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자 되기 정말 쉽네, 별것 아니군.’

다음날 해질 무렵, 불효자는 효자처럼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워서 방을 따끈하게 하였습니다. 미리 아랫목에 부모님의 침구를 깔아놓고 부모님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 가까워 오자, 불효자는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신의 체온으로 이불 안에 온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잠을 청하려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자기 이부자리 속에 누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면서 작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놈이 버릇없이, 애비의 이불에서 잠을 자다니, 천하에 불효막심한 놈.”

아버지는 화가 풀리지 않아 만나는 사람들과마다 전날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아들을 불효자라고 몰아세운 것이지요. 소문은 금방 돌아 마을 사람들이 불효자를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우주에는 위대한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간파하시고 ‘법구경(法句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은 그를 따르리.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의 자취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밝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밝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만일 여태까지 어둡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일부러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성격도 연습하면 고쳐잡니다. 지금의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를 다시 생각하며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화엄경에 보면 구도자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열 가지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열 가지 덕성이란 첫째, 사람들을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베풀며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보시(布施). 둘째, 계율을 지키면서도 이에 집착하지 않는다-계행(戒行). 셋째, 고통을 참고 견디며 어떤 말에도 동요치 않는다-인내(忍耐). 넷째, 정진하여 게으름이 없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이 있다-정진(精進). 다섯째, 어떤 원망(願望)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신통력을 갖추고 이런 경지를 계속 초월하여 제불(諸佛)의 지혜를 갖추기에 이른다-통일(統一). 여섯째, 제불 가까이에서 법을 듣고, 지도자를 친견하고 모든 사항을 바르게 관찰한다.

그리고 선정을 닦아 편견을 떠나서 선지자의 지혜를 갖추기에 이른다-지혜(智慧). 삼보에 예경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온갖 경계에 몸소 들어가 사람들을 눈뜨게 한다-방편(方便). 여덟째, 사람들의 원을 이루어 주고, 세상을 훌륭하게 만들며 여래에게 공양

하고 존재를 깨닫는다-원(願). 아홉째, 마음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변설(辨說)의 힘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신통력으로써 사람들을 지킨다-힘. 열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제불(諸佛)의 지혜력에 도달하여 일체의 도리를 분별한다-지(知).

그리고 구도자에게는 열 종류의 좋은 지도자 상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잘 심어주는 지도자 ②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선을 수행시키는 지도자 ③ 구도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지도자 ④ 진실의 세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지도자 ⑤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고 성숙시키는 지도자 ⑥ 질문에 응하여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지도자 ⑦ 윤회하는 생존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지도자 ⑧ 구도자의 실천을 행하게 하고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도자 ⑨ 보현보살의 자비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지도자 ⑩ 마음으로부터의 심원한 지혜에 들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법왕사의 백고좌법회 법상에 오르는 분들은 법랍 30년 이상의 덕 높으신 대덕스님,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하신 눈 푸른 납자, 포교 일선에 계시는 스님 등 매우 다양한 이력의 스님들입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에게 열 가지 덕성을 갖추고 열 가지 수행법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백고좌법회란 일백분의 고승을 초청하여 일백일 동안 쉬지 않고 설법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고좌법회는 신라 진평왕(613년) 때에 황룡사에서 백고좌 법상을 차리고 원광법사 같은 스님들을 모시고 설법하였던 것이 시초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는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에 의한 법회로, 인왕반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대들은 반야바라밀경을 수지하라. 이 경은 무량공덕이 있으니 국가를 지켜주는 공덕과 중생들을 진리의 기쁨으로 인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는 공덕이 있다.

또 모든 중생의 몸을 지켜준다’ 고 하셨는데, 이러한 무량한 공덕을 얻기 위해 백고좌법회를 봉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중생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1백 불상, 1백 보살상, 1백 나한상을 모시고 칠부대중의 1백분의 법사를 청하여 법문을 들어야 한다. 이때 1백 송이의 꽃으로써 삼보전에 공양하며, 가르침을 독송해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중단되었던 백고좌법회의 전통을 이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법회를 열어 올해로 어느덧 제3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이처럼 뜻깊은 법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감로법문에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없는 오늘 없고 과거 없는 미래 없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자기 내면에서 갈등하는 욕구불만의 대리만족을 위한 우상화, 선망적 대상에 대한 맹신의 위험수위가 이처럼 높다보니 그 뒤를 이어 악의 축, 히틀러가 출현했고, 스탈린, 김일성을 비롯한 근세 지구촌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든 전범들을 마구 양산시키는 효과 만점의 촉진제 역할을 한, 이는 곧 그릇된 뼈뺀 가치관이 빚은 '영웅 인식'의 교육·문화적 토양이 길러낸 혼탁한 부산물이라는 이야기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함은 바로 연기법에 근거한 말로써, 이는 곧 인연이 가지는 의미를 가리킴이다.

새하얀 옥양목을 붉게 물들이면 붉은색 바탕의 옷감이 되고, 푸르게 물들이면 푸른색 바탕의 옷감이 된다. 생선을 썬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쥔 종이는 향내가 배이듯, 인간은 환경에 물드는 동물이다. 특히 성장기 시절, 환경적 배경에 있어 그 영향은 타고난 유전인자보다도 오히려 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게 학계의 밝혀진 정설이다.

우리들에게 깊이 각인되다시피 한 ‘위대

한 영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폭력가정에서 자란 히틀러의 성장배경과도 닮은 나폴레옹(1769~1821)이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적 배경, 이점은 지난호에서도 지적한 알렉산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 경우다.

사람은 하늘 아래서 악명을 떨치며 국제 살인마적 패악을 저지른 명백한 최고 흉악범을 두고, 엉터리 잣대로 재어 ‘결출한 영웅’이라 추켜세워 과대포장하고 선전했다.

이처럼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흉악범에게 쏟아지는 찬사, 찬양은 서글프도록 모순

된 일ियो 이율배반적으로, 마치 대룡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악성(樂聖) 베토벤조차도 1805년 완성한 교향곡 3번 〈영웅〉과 뒤이어 나온 작품,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피를 뿌리는 전선에서 승승장구하는 나폴레옹에게 헌정하기 위해 지었을 정도이다.

자기 내면에서 갈등하는 욕구불만의 대리 만족을 위한 이상화, 선망적 대상에 대한 맹신의 위험수위가 이처럼 높다보니 그 뒤를 이어 악의 축, 히틀러가 출현했고, 스탈린, 김일성을 비롯한 근세 지구촌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든 전범들을 마구 양산시키는 효과 만점의 촉진제 역할을 한, 이는 곧 그릇된 뼈뚫한 가치관이 빚은 ‘영웅 인식’의 교육·문화적 토양이 길러낸 혼탁한 부산물이라는 얘기가

나폴레옹은 사치와 허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의 여인, 조세핀에게 출정식이 있을 때면 앞서 늘 이렇게 말한다.

“..... 조세핀! 지난해는 알프스를 넘어 비엔나를 차지하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로마를 쳐서 아름다운 트레비 분수를 그대에게 바치겠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행운이 따른다면 곧장 마드리드로 진격해 사나다운 투우경기도 함께 보도록 그대를 부르리다. 게다가 고풍스런 알힐랄 옛 궁전에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감상하며 진한 코냑으로 여독을 풀면서

전승을 자축할 것이요. 그 여세를 몰아 다뉴브 강을 건너 황금색 티크나무숲에 눈이 내리기 전에 모스크바로 진군해 승리의 행진곡이 울릴 때면 바실리 성당의 장엄합이 당신의 그 깊고 푸른 눈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요. 그리고서 그대 생일이 오기 전에 이 스탠볼에 입성하여 우아한 터키식 에메랄드 목걸이를 선사하리라.”

과대망상이 영웅심리 조장

이처럼 자기도취, 착각에 빠진 나머지 과대망상에 젖어 몽상이나 즐겨 꿈꾸며 남을 지배하고 싶은 뒤틀린 심사가 영웅심리를 조장, 부추기면서 정복욕으로 타올라, 결국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만다.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그들의 군대가 100여 년이 지난, 1866년 강화도에 상륙하여 정족산 전등사를 습격, 승려들을 마구 살해하고 사찰 고서 및 왕실 사고(史庫)를 약탈, 방화한 사건(병인양요)을 생각하면, 극악무도한 국제범죄 도적떼는 미개인이 아니라 힘을 가진 문명인들의 소행이다.

근래 들어 우리 정부가 당시 약탈해간 문화재와 고서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겨우 책 몇 권 정도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이것이야말로 기막힌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나라로서, 자칭 선진문화대국임을 표방하는 프랑스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남긴 ‘나의 사전에 는 불가능이 없다’ 는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말을 배우는 유아가 때부터 들었고, 학교 교과서를 통해 불세출의 영웅이 한 말로 각 인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장래 꿈꾸는 인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을 정도였으니, 그를 낳은 자국의 후예들이 느끼는 긍지와 가지는 자부심은 굉장할 것이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사골뜨기라는 놀림과 열등감 속에 반항과 공격성향이 싹트는 성격장애의 외톨박이로 자라는 가운데, 사관학교를 나와 포병장교가 된다. 나폴레옹은 24세가 된 해에 왕당파 반란군을 진압하는 무훈을 세워 소장이 되고 26세 약관의 나이에 타고난 정복자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눈 덮인 알프스산 너머 오스트리아를 침략, 점령했으며, 33세에 종신 대통령에 임명되고, 35세에는 자칭 황제가 된다.

크리미아전쟁터에 육군 장교로 참전한 실전을 경험으로 전쟁의 참상과 침략자의 만행을 고발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작품 무대가 되기도 한 나폴레옹의 러시아 대침공은 1812년에 시도하여 모스크바까지 진격하였으나 화재와 한파로 퇴각하고 만다. 기록에 따르면 그 해 모스크바의 겨울은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춥지 않았고 유달리 따뜻했으며 10월 27일까지도 서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유난히도 따뜻했던 그 해 러시아의 겨울이 나폴레옹의 모든 작전

에 차질을 가져오고 만다. 첫째로 땅이 얼지 않아서 소형포나 대형포를 이동하는 과정에 바퀴가 진흙에 빠져 대포 이동에 지장을 주었고 또 얼어야 할 베레사나 강이 얼지 않아서 군대가 강을 건널 수 없었던 까닭에 나폴레옹은 눈물을 머금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군대가 아니라 굶주린 폭도들

당시 프랑스 군대를 지휘하던 네이 원수가 그의 아내에게 급히 보낸 편지에는 나폴레옹이 저지른 전쟁의 비극과 프랑스 군대의 참혹상이 들어있다.

‘군대의 행진은 무시무시한 눈발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소. 낙오병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불을 피우고 쪼다가 그 자리에서 타죽는 병사가 부지기수이고 이것은 군대가 아니라 목적도 없이 굶주림에 지쳐 허덕이는 폭도에 불과한 집단의 모습이오.

우리 군은 베네시나 강둑에서 러시아군에게 포위를 당했소. 불가피하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만 하오. 명령에 따라 300명의 공병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소. 도강이 시작되었고 밀고 밀리며 강을 건너는 무리 가운데로 러시아군의 유탄이 쏟아져 내리고 있소.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이었소.

우리 군대를 패퇴시킨 것은 러시아군의

총알이 아니라 동장군과 굶주림이 우릴 정복해버린 거요.’

동(冬)장군! 맹위를 떨친 그 동장군의 기세에 눌린 나폴레옹은 그해 모스크바 원정에 실패함으로써 병사 50만명을 희생시킨다. 그러고서 3년이 지난 1815년 6월 워털루 대전투에서 영국의 웰링턴에게 또다시 수천명의 병사를 잃으면서 전의를 상실한 그는 초라한 패장이 되어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6년을 고독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다 종말을 맞는다.

워털루 전투에 대하여 문호 빅토르 위고는 훗날 이렇게 쓰고 있다.

‘비가 오는 바람에 늦어진 전투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웰링턴의 군대는 몽 생 장이라는 읍의 산등성이에 전열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곳은 나폴레옹 군대가 주둔한 ‘위대한 연합군’이라는 읍으로부터 6.4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는 죽의 계곡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불과 8시간 만에 수천명의 병사들이 핏물에 잠겨서 죽어갔다. 전투의 막바지에 나폴레옹 군대는 1/3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나폴레옹은 슬피 울면서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괴로워하였다.’

알렉산더는 학질에 걸려 앓다 죽었고, 징기스칸은 말에 떨어져 병고에 시달리다 죽

었으며, 나폴레옹은 무인도에 유배된 채 지병으로 쓸쓸히 죽었다.

오랫동안 인류사가 영웅으로 인식하면서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며 우러러 찬사를 아끼지 않은 이들, 3인은 하나 같이 병고, 객사함으로써 필연적 최후를 맞은 그 배경에 드러난 원인자(原因子)가 무엇이겠는가?

어제 없는 내일이 없고
내일 없는 오늘이 없듯이,

과거 없는 미래 없고
미래 없는 현재 없다.

따라서 오늘은 곧 내일을 만드는 연장선상의 작업(作業) 공정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꽃싸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7년 5월호, vol. 269)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땃싸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7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땃싸 부처님은 어둠을 파괴하고, 동정심과 통찰력, 그리고 계율과 선정을 완성한 후 법의 바퀴를 굴려서 많은 중생이 해탈의 꽃을 피우게 한다. 그때 고따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자따'라는 왕족이었는데, 천상의 꽃을 부처님의 머리에 꼽는다. 그러자 땃싸 부처님은 '수자따'에게 '미래에 고따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땃싸 부처님은 10만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난다 숲속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īpaṅ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사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8번째의 붓다인 풋싸불(phussa-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중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불중성경(Buddha-vamsa)_CST4 : KN-Bvm, ch.20, vs.1-25]의 역요약 _*(아래 주석 1번 참조)

1. 풋싸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_거기 만다갓(maṇḍa-kappa) 중에 최고의 스승이 출현하시는데, 비교할 수 없고, 무등등과 동등하신 세상의 최고 지도자이신 풋싸(phussa) 부처님이시다. 또한 그 부처님은 모든 어둠을 파괴하고, 거대하게 얽힌 [번뇌]덩어리를 풀고, 신들을 만족시키며 불사(amata)의 비를 내린다.

[vs. 3-4]_상서로운 별자리 축제인 풋싸달(phussa : 12월~1월)에 풋싸 부처님이 범륜을 굴리시는데, 이때 10만 꼬띠(1조)의 중생에게 첫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이어서 9백만의 중생에게 두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다음으로 8백만의 중생에게 세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vs. 5-7]_위대한 성자인 풋싸 부처님에게는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들이 파괴되고(khīṇā-āsava), 흠이 없으며,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은 6백만 명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모임은 5백만 명이다. 세 번째 모임은 4백만 명인데, 집착 없이 해탈하고, 윤회재생을 단절하였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8]_그때 나(고파마 부처님)는 위지따위(vijitāvī)라는 왕족(khattiya)이었는데, 큰 왕국을 버리고 그 부처님의 회상에서 출가한다.

[vs. 9-10]_ [그러자] 또한 세상의 최고 지도자인 그 풋싸 부처님은 나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지금부터 92겁 후에 이 위지따위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 라 하고, 아버지는 쏫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파마(gotama)가 될 것이다. 쾰리따(kolita : 대목 건련)와 우빠뎃싸(upatissa : 사리뎃싸)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

(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파라(uttarā)*와 난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탓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데 없는 위대한 성자(뜻싸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뜻싸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뜻싸]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1]_내(위지따위=미래의 고탓마 부처님)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

지고, 10바라밀(pāramī)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vs. 12-13]_ 또한 경과 율, 그리고 9분교등의 스승의 가르침 모두를 철저히 배우고, 승자의 가르침을 빛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깊게 머물면서 ‘브라흐마 바와나(brāhmā bhavana : 사무량심 수행)’를 개발하고, 초월지(abiñña)를 완성한 후, 나는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다.

3. 뜻싸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4-16]_위대한 성자이신 뜻싸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까시까(kasikā)이고, 자야세나(jayasen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시리마(sirimā)이다. 그는 9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가룰라빠카(garuḷapakkha), 향사(hamsa), 수완나바라(suvaṇṇabhārā)’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2만3천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끼사 고탓미(kisāgotamī)이고, 아들은 아누빠마(anūpama)이다.

[vs. 17-18]_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코끼리수레를 타고 출가한다. 인간 중의 최고(뜻싸 부처님)께서는 6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도자이고, 위대한 영웅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인 꽃싸 부처님은 범천의 권청이 있자 뛰어난 녹야원(migadāya)에서 법의 바퀴를 굴리신다.

[vs. 19-21]_꽃싸 대성자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수라키따(surakkhita)와 담마사세나(dhammasena)이고, 시자는 수 비야(subhiya)이다. 그리고 최고 상수 비구 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찰라(cālā)와 우빠찰라(upacāl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야만다(āmaṇḍ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다난짜야(dhanañcaya)와 위사카(visākha)이고, 으뜸가는 재가여성신자는 빠두마(padumā)와 나가(nāga)이다.

[vs. 22-23]_그 성자의 신장은 58라타나(28m)이고, 보름달처럼 100개의 빛으로 빛난다. 그때의 수명은 9만년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했다.

[vs. 24-25]_많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저 언덕(해탈의 세계)으로 이끈 후, 건줄 바 없는 명성을 가진 그 스승(꽃싸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드신다. 최고의 승자이자 스승이신 꽃싸 부처님은 세나숲사원(sena-ārāma)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사리유물은 여러 지역에 퍼진다.

*주석1: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벨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 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_[KN-Bvm-a-gaṇṭharambha-kathā]

*주석2: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옷따라와 난다따를 마치 두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굿따라 니까야(AN1, n.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원문의 계승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_(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뛰어난 공덕으로 중생들에게 희망 주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무언보살(無言菩薩)

이 보살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걸맞는 말만을 하므로 무언보살이라고 한다.

〈대방등대집경〉 제12권 〈무언보살품〉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라자그리하(Rajagrha)의 사자장군(師子將軍)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때 허공에서 여러 천신이 말하였다. “동자여, 마땅히 법을 염(念)하고 법을 사유하며 항상 말할

적에는 세상의 일을 말하지 말고 세상을 벗어난 출세간의 법을 분별하여 말할 것이며, 항상 입을 다물고 말을 삼가고 말을 적게 하며 세상일에 온갖 번거로운 느낌이나 시시콜콜한 관심을 일으키지 말라.”

동자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울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없었으며 7일 만에 얼굴빛이 환하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눈을 감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사자장군 부부에게 일렀다.

“이 아이는 상서롭지 못하니 키우지 않음이 좋겠소. 왜냐하면 병어리이기 때문이오.”

이 말에 장군 부부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무언(無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아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 몸의 바탕은 원만히 구축하여 모자람이 없으니 이 아이는 상서롭지 못하거나 박복한 사람이 아니며 반드시 복덕이 있음이 분명하오.”

이어지는 경전의 내용에 의하면 사리불이 무언동자가 전생의 죄업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자,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 그런 생각으로 무언동자를 경멸하지 말라. 이 동자는 이미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어 보리도에서 물러나지 않느니라.”

무언보살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말이 없었으며 그러한 인연으로 무언이라 한다. 그러나 <대방등대집경>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나 과거 위해서네 가지 무애변재를 갖추어 중생들에게 설법하여 이익을 주고 이끌어들인다.

무언보살은 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일깨워 준다. 세상의 온갖 부조리가 언어에서 비롯되며 세상의 온갖 시비가 언

어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무언보살은 가르친다. 몸과 마음과 언어로 짓는 온갖 죄업도 결국은 언어가 기초가 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입은 재앙의 문’이라 하였다.

문수보살(文殊菩薩)

범어로는 만주스리(Manjusri)이며 문수사리, 만수시리, 만수실리 등으로 음역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음역은 문수



사리이며 줄여서 문수라고 한다. 문수는 묘(妙)하다의 뜻이고 사리는 으뜸(頭), 덕(德), 길상(吉祥)의 뜻으로 묘길상(妙吉祥)이라 번역한다. 즉 지혜가 뛰어난 공덕을 지닌 보살을 의미한다.

이 보살에 대한 명칭은 신역과 구역을 합하여 6종이 있는데, 묘덕, 묘수, 보수, 유수, 경수, 묘길상이다. 이 가운데 묘길상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우보처로 있는 보현보살이 행원을 맡은 데 대하여 지혜를 맡고 있다. 머리에 오계(五戒)를 맺고 있는 것은 대일여래의 오지(五智)를 표현한 것이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지혜를 상징한 것이다. 왼손에는 꽃 위에 지혜의 그림이 담겨 있는 청련화를 쥐고 있는 것이나 사자를 타고 있는 것도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함과 함께 위엄과 용맹을 표현한다.

이 보살의 형상은 각기 다르나 1자문수, 5자문수, 8자문수, 1계문수, 5계문수, 아(兒)문수 등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방편으로 출현하여 보살의 자리에 있다. 이 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살도음망(殺盜淫妄)으로 지은 사중죄(四重罪)가 일시에 소멸한다 하여 문수신앙이 크게 일어났다. 현재 북방의 상희세계(常喜世界)에 있는 환희장마니보적불이라 하기도 하고 일찍이 성불하였다 하여 용존상불, 대

신불, 신선불이라고도 한다. 또는 미래에 성불할 보살이라 하여 ‘보견(普見)여래’라 불리기도 한다.

혹은 경전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반야 또는 <반야경>을 편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의 스승이기도 하며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서 보현보살과 더불어 삼존불의 일원이 되고 있다. 중국의 산서성에 있는 오대산에서 일만보살과 함께 상주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오대산의 문수신앙과 연결되고, 금강산의 일만이천봉도 문수보살과 함께한 보살들을 상징한다.

미륵보살(彌勒菩薩)

범어로는 마이트레야(Maitreya)이다. 미륵은 성씨이고 이름은 아지타(Ajita, 阿逸多)이다. 그의 성인 미륵은 자씨(慈氏)라 번역되고 이름인 아지타는 무승(無勝) 또는 막승(莫勝)으로 풀이된다. 또 혹자는 아지타는 성이고 미륵이 이름이라고도 한다.

인도의 바라나국 어느 바라문의 가정에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는다. 그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입멸하여 도솔천에 올라가 그곳의 천인들을 교화한다. 그렇게 56억7천만 년을 지나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華林圓)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 3백억의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이때 제도를 받는 중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살다간 모든 중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에서 '보처(禪處)의 미륵'이라 하고 현 집 천불 가운데 제5불에 해당하며 이 법회를 '용화삼회'라 한다.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기 전까지를 미륵보살이라 하고 성불한 뒤를 미륵불이라 한다. 도솔천에 거주하는 동안 미륵보살의 곁에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신앙이 상생신앙(上生信仰), 미륵보살이 하강하여 제도하여 주기를 희망하는 신앙이 하생신앙(下生信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륵보살에 대한 지극한 바램은 그를 미래불(未來佛)로서 신

앙하는 것이다.

통일신라기와 고려 초기에 등장했던 화랑도 정신이나 궁예, 견훤, 묘청 등의 개혁사상이라든가 고려 말의 신돈 화상이 부르짖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 제도, 구한말에 등장한 천도교, 증산교 등을 비롯한 신흥종교운동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 미륵하생 신앙의 실천적 표현이었던 것이다. 미륵보살은 그러기에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처님이며 언제나 서민들의 두터운 신앙을 지니고 있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내용은 <미륵하생경>과 <미륵성불경>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3일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이란 슬로건으로 봉축법요식을 대적광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에는 법왕사 불자 5백여명이 동참하였으며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발원문 낭독, 관불의식 등 모든 절차를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 1 봉축 법문을 하는 실상 주지스님
- 2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는 불자들
- 3 색색이 연등으로 장식된 법왕사 경내 모습
- 4 봉축법요식에 법당을 가득 메운 불자들





5



6



7



8



9



10

- 5 법요식의 의식가를 맡은 우담바라 합창단
- 6 육법공양 의식 가운데 과일 공양 모습
- 7 정안식 전 거사림 회장의 봉축사
- 8 봉축 발원문을 낭독하는 강선옥 해오름요양원장
- 9 봉축사를 낭독하는 보살
- 10 어린이 발원문 낭독
- 11 법요식 이후 펼쳐진 축하 한마당의 춤 공연



11

요양원 종사자 수기

사회복지사의 고민



사회복지사 / 이상혁

내가 사회복지사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별것이 아니었다.

15년 가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기 잘했구나 하는 보람도 느꼈고, 인정도 받았지만 국가교 육정책과 학원시장의 환경이 변하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 게 되면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게 되었다.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인연이 닿아서인지 사회복지실습을 하게 된 해오름요양원 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 게 되었고 처음엔 생소한 용어와 업무에 당황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스님을 비롯하 여 요양원 식구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부 딃치고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숙련자도 아 니고 초보자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자의 입

장에서 내가 과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 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글을 쓰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학문적 정의는 ‘경제적, 심 리적으로 문제(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문 제(욕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client)에게 접근하여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욕구)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들을 당사자와 상의하여 스스로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복지’ 를 이루기 위해 거들어주 고 이어주는 전문가이다. 즉,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잘 이루도록 이어줌으로써 하 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누 고 싶을 때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고 도와 주는 사람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정의는 매우 넓고 복잡하며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 다. 그렇다보니 수많은 영역에서의 활동과 역할 또한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역량과 역할 이 복잡하고 다를지언정 평가되어지는 결 과는 ‘복지’ 하나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것 이 전문가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가적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결과 속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대상과 환경은 점차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사회적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그 관계를 강화해서 복지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당사자(client)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회복지사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기관의 업무, 자료 활용,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익히 배우고 체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것을 느끼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나는 전문가인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본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것을 느끼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되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나는 전문가인가?



치매 예방프로그램



작업치료사 / 서동남

매주 어르신별 수준에 맞게 그룹을 나누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업치료사 서동남입니다.

일상생활이 자립과 의존이 병행되시는 분은 A그룹, 외상 어르신으로서 침상 생활과 의존도가 높으신 분은 B그룹으로 나누어 치매 예방체조와 손으로 물건 촉감 느끼기, 책 읽어 드리기, 그림그리기, 풍선놀이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

화와 장애 상태를 지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발달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환자와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작업,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어르신들 작업치료활동의 모습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대효과

프로그램	목표	기대효과
치매 예방체조	어르신들의 관절운동과 대·소근육의 운동, 그리고 회상 놀이를 통한 치매 예방	치매예방프로그램 참여로 사회성을 함양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요양원 생활의 만족도를 높임. 프로그램을 익히고 협동심을 기르며, 성취감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회복한다.
손으로 물건 촉감 느끼기	다양한 자극을 통한 촉각 발달과 인지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	촉각 자극을 통한 오감 발달과 인지력 향상
책 읽어 드리기	심신 안정과 청각적 자극 반응 유지 및 증진	심신안정 및 청각자극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기에 유지 및 증진에 효과가 있음

노인학대 예방 Q&A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Q 노인인권이란?

- A**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Q 노인학대란?

A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나.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다. **성 적 학 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마.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바.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Q 우리의 역할은?

- A** ①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린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한다.
 ③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한다.
 ④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핀다.
 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한다.
 ⑥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⑦ 기타 노인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법왕사 소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3일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대적광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에는 법왕사 불자 5백여명이 동참하였으며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발원문 낭독, 관불의식 등 모든 절차를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불자들은 법요식을 마치고 법당과 야외 연등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33회 백고좌법회 회향



지난 2월 14일 입재한 제33회 백고좌법회 회향법회가 5월 24일 대적광전에서 암도 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불명 및 보살계 수계법회로 봉행하였습니다. 법회에는 100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1백일 동안 계속된 법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100일 대장정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을 초청, 경율론 삼장 전반에 걸친 알찬 법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왕사 마당에서 자라는 호박과 오이



법왕사 마당에 조성한 텃밭에 마디호박과 오이, 가지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어 새삼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지스님이 파종한 채소는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어린 보살품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었으며 조만간 수확하면 불단에 공양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우담바라 합창단 연등합창제 참가



법왕사 우담바라 합창단은 지난 4월 28일 신천둔치 야외특설 무대에서 열린 달구벌 연등합창제에 참가하여 '하숙생', '아름다운 세상' 등 두 곡의 음성공양을 하였습니다. 이날 합창제는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대구경북불교연합합창단이 주관한 행사로 대구에 소재한 각 사찰의 합창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담바라합창단은 박정에 보살을 단장으로 정무시 선생의 지휘, 박수진 보살의 반주로 운영되는 법왕사 합창단입니다.

제33회 백고좌 영가천도 49재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23일 제33회 백고좌 영가천도 49재를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49재는 지난 4월 5일에 입재하여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이번 49재에서는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였습니다.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봉행

정유년 윤5월을 맞이하여 오는 5월 31일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법회를 입재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고유한 의식으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34회 백고좌법회 6월 13일 입재

법왕사 제34회 백고좌대설법회가 6월 13일 입재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올 들어 두 번째 봉행하는 법회로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

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법회인 제34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 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불교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적멸보궁 순례법회 봉행



오는 5월 28일 제33회 백고좌법회 회향에 즈음하여 법왕사에서는 적멸보궁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순례코스인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입니다. 이 두 도량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에 속하는 곳으로 현재 순례단을 모집 중이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법왕사 거사림 김판돈 회장의 장남 결혼식이 지난 5월 27일에 열렸습니다.
- ※ 박경자 보살의 자제 결혼식이 5월 21일에 열렸습니다.
- ※ 장금학 보살의 장남 결혼식이 지난 5월 28일에 열렸습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김재규 최암웅 김현철 성철수 소인섭 이호규
송정욱 송성희 김응천 김태완 박종경 백성진
김달원 조경옥 강상우 이춘옥 이태원 최성미
윤봉한 손대호 김사임 류두희 박종옥 강현주
이시익 박명숙 이인철 김종진 유창화 변일웅
임성범 백미진 정흥근 성점화 송화준 김도수
김소영 김윤영 전두근 조진환 최 호 송채윤
김정옥 이원석 김도열 권택진 도재용 유두희
이경호 박을수 윤도영 서재욱 김혜정 전태명
박광용 이종석 정일연 배재호 변영일 김종철
백이도 최인용 정성훈 박철환 최수한 김용래
정위화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
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법사비 보시하신 분

도연스님 일광 비구니스님 범일스님 지일스님
법안스님 현정 비구니스님 성화스님

사보도움 주신 분

김진양 2만원 심동섭 2만원 최용식 2만원
김종황 2만원 김상열 2만원 전민형 2만원
뉴스킨 권순예 1000부 최옥남 300부
홍공덕식 500부 이재왕 500부 김성호 500부
권혜경 100부 김성열 300부 권민영 2만원
박남희 500부 노기주 200부 정춘화 5만원
이이근 2만원 방지현 2만원 박 옥 2만원
이광길 10만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
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정근순 최영근 이세정 김경찬 성 윤 성 충
심보현 이승민 김만기 김유창 윤다경 장해원
여충엽 박계옥

◎ 떡공양 올리신 분

윤견불심 엔디장 ㄸ송상수 공세포 김진환
정영미 이세정 최태희 양문갑 양영갑
구실상화 이세정 이종량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이승민 김수곤 양문갑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 양영갑 양문갑

◎ 물품 보시하신 분

이유태(휴지 10꾸러미) 김종황(생수)
배재호(반상기) 신용술(소금)

◎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구실상화 장난희 박경란 이종량 최태희 황자연

◎ 경로잔치 공양 올리신 분

일심회 신장희 산신회 최옥선 조만영 금태운
박은혜 최윤제 이세정 김정욱 김판돈 오진환
김수곤 윤불련 화원 일동 이승민 박종성
이상봉 전재술 김현주 이화조 방지현 계해정
고은희 채자연 양문갑 양영갑 김보조 권상태
이종량 권순득 김상수 백월순 진상심 김주희
이영애 양자원 홍유식 홍기수 권종오 이점례
상동덕화경로당 김길자 애타마을경로당 김옥경
권영현 박병준 홍리빙팩토 우종원 김종열

◎ 부처님오신날 공양 올리신 분

이정상 김영자 전재술 신현채 김기수 강정선
우종원 김종열 이세정 최옥분 고연숙 김종숙
박경관 김종황 이우호 이순일 이승민 박상익
박성용 사공지웅 사공곤 황미선 박정애
손태익 오난옥 이상훈 심보현 김명숙 박대희
배기준 이종량 권상태 양혜진 양병훈 이정화
허정현 차운재 권영숙 류윤만 신장희 지장희
관음희 산신희 합창단 강신우 정안식 신종태
이세정 조기수 조기수 임인한 신종태 여축동
최태희 배기준 여영동 백월순 백대행심
이세정 권짜재 박종화 여택동 제갈옥
한오계식 권오삼 김기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단집 불사하신 분

김진용

◎ 저금통 회향하신 분

박홍렬

◎ 승복 올리신 분

성 윤 심규암

◎ 부처님 복장물 불사하신 분

강경근 강지웅 강자백 유문주 서진호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79 자운스님 81 이원석 82 김현석 83 이운수
84 양효숙 85 여축동
86 한국기업 경영진흥원(주) 87 백대행심

◎ 범종 불사하신 분

정민교 관일스님

◎ 한평불사 올리신 분

최재훈 최윤재 최준혁 한이시종 김가을
권오삼 외 친지일동

◎ 만불전 1만원불 봉안하신 분

민예반 민예원 한강분자

◎ 본당인등 올리신 분

26 정기영 27 정다연 176 김유리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84 이승빈

◎ 산신인등 올리신 분

277 황인제

◎ 일년등 올리신 분

326 손정열 327 이문진 328 김중환 329 서규선
330 최재운 331 김유창 332 심재용 333 조특래
334 김갑진 335 김광현 336 나채준 337 이재우
338 박판규 339 문동식 340 황보일 341 신석봉
342 김명숙 343 조형래 344 석광영 345 김석엽
346 송재호 347 카톨릭의료기
348 농업회사법인(주)좋은하루 349 동양산성가스텍
350 (주)대상헬스케어 351 현대엘리베이터(주)
352 세명엔지니어링 353 산업전기안전관리(주)
354 흥현덕 355 이웅진 356 김경배 357 이옥순
358 정택상 359 심재명 360 박찬식 361 박학범
362 이순일 363 김추석 364 허대성화
365 박정아 366 박종출 367 김순근 368 배한업
369 유명만 370 임재오 371 황치구 372 이광순
373 김오현 374 백귀옥 375 배정환
376 부산 진흥사 377 용주사 378 강상조
379 김진한 380 최종호 381 박재용 382 박순영

383 한정수 384 윤종남 385 안준영 386 김인수
387 이성용 388 이연옥 389 강대웅 390 김영식
391 김금난 392 박종환 393 이종환 394 구영희
395 조옥식 396 류화자 397 임상천 398 이상률
399 계해정 400 이한국 401 이종석 402 이원석
403 김진웅 404 김우성 405 윤병재 406 김승열
407 정제규 408 이재봉 409 김병일 410 백창희
411 김영태 412 박일수 413 정두진 414 문수인
415 손동경 416 김정순 417 방형욱 418 최옥분
419 정근순 420 이진혁 421 권계화 422 이상혁
423 이정규 424 김태현 425 이연이 426 최남석
427 김순자 428 전성식 429 이재철 430 정동영
431 김수석 432 하승자 433 김동학 434 임성녀
435 박봉선 436 정인순 437 박성용 438 고재일
439 이영수 440 이달희 441 김상원 442 박호황
443 임용우 445 성점순 446 이상윤 447 이정배
448 정기철 449 이병훈 450 조병호 451 정무시
452 김아규 453 우인환 454 김종선 455 이우호
456 박수식 457 이이근 458 정침재 459 김동수
460 안영조 461 배기철 462 하태기 463 양복임
464 염준원 465 김형길 466 최숙자 467 정경조
468 김동휴 469 최중수 470 최주원 471 조임조
472 박승규 473 김우영 474 김종수 475 윤정호
476 장병근 477 전득근 478 홍부근 479 김응달
480 권태묘 481 조용호 482 최원순 483 유선주
484 현종위 485 김승인 486 김진양 487 김택년
488 정상열 489 박계옥 490 홍기수 491 이덕희
492 동영유치원 직원일동 493 상일양초
494 강명오 495 윤정남 496 이정환 497 도원우
498 차순자 499 고광철 500 고재우 501 장문기
502 이범영 503 이종표 504 이명발 505 이선재
506 박천득 507 박이용 508 도호천 509 홍경호
510 이희동 511 이병노 512 전애란 513 김영곤
514 유종건 515 영일스님 516 윤운채

517 문성섭 518 안중옥 519 박재민 520 류태곤
521 차운재 522 채금연 523 신돈식 524 권치호
525 손영준 526 인수권 527 양덕균 528 양지원
529 이대진 530 조규성 531 김길웅 532 조옥순
533 박철웅 534 박감로화 535 민경숙
536 임재록 537 서상동 538 조전근 539 채종달
540 이돈식 541 박봉순 542 김금순 543 (주)셀엠
544 김철환 545 최병남 546 김찬수 547 김용구
548 조정호 549 박 옥 550 박종무 551 김건희
552 김기현 553 김호택 554 서정욱 555 신홍준
556 박재영 557 신민호 558 신현국 559 김성록
560 신정순 561 류호진 562 이해승 563 김대영
564 도창중 565 시미즈 566 삼진농산
567 박희승 568 석응영 569 최승원 570 양수한
571 신병주 572 백영두 573 구석태 574 서승배
575 신주철 576 위장욱 577 곽연향 578 김현철
579 김미혜 580 김소라 581 김미월 582 성철수
583 윤 윤 584 황효영 585 권영진 586 이태희
587 소인섭 588 김재규 589 이호규 590 송정욱
591 뉴월드먼트 592 조희근 593 안명흠
594 송성희 595 강대철 596 서만교 597 김응천
598 김태완 599 김평국 600 김춘자 601 박정락
602 조민호 603 조기수 604 홍성수 605 박종경
606 신원섭 607 박말순 608 이종대 609 박순국
610 배기준 611 백상진 612 엄영모 613 조영득
614 박성규 615 이경자 616 김교창 617 김달원
618 조경옥 619 손양덕 620 정삼식 621 손동림
622 이상철 623 최영호 624 이태원 625 최상미
626 윤봉한 627 정규하 628 염길태 629 강석태
630 손대호 631 이대길 632 이인숙 633 오정식
634 이준옥 635 이태석 636 이영환 637 정형용
638 장성용 639 이영순 640 이 영 641 정의화
642 박태조 643 김호동 644 이원하 645 김종진
646 유창화 647 박제상 648 장무진 649 김영목

650 우무성 651 이용웅 652 박해일 653 이분근
654 김정숙 655 김혜진 656 김일순 657 김상조
658 박옥순 659 이재희 660 박연수 661 김정연
662 차미희 663 이치우 664 임성법 665 백미진
666 김광락 667 정홍근 668 권진규 669 김재엽
670 진경주 671 이상봉 672 차태열 673 허전명
674 김성도 675 김광수 676 김돈수 677 조규창
678 김소영 679 조민진 680 서태수 681 김경현
682 황용순 683 서길수 684 최 호 685 민정기
686 장익수 687 김여래심 688 석현진
689 조규철 690 박인철 691 정왕국 692 김인현
693 장용기 694 이영각 695 문영란 696 안창식
697 임창효 698 임민하 699 임재현 700 김도현
701 전순옥 702 박옥순 703 백복선 704 송채윤
705 조성찬 706 문용욱 707 김정옥 708 이정순
709 제창해 710 이명자 711 이재원 712 한순복
713 이원석 714 이재후 715 김월봉 716 박성근
717 장두옥 718 정태조 719 노사근 720 김도열
721 김상수 722 박석홍 723 김봉일 724 권택진
725 조수원 726 김대웅 727 강신규 728 도재용
729 김화자 730 김상훈 731 임분자 732 홍준형
733 박영우 734 김상수 735 김병호 736 유옥재
737 이재현 738 김상일 739 권용오 740 권병인
741 류두희 742 강점규 743 김원진 744 성점화
745 이성승 746 이경섭 747 파스꾸찌
748 진보학우회 749 이기원 750 이종호
751 이경락 752 이용호 753 이시익 754 최재전
755 구본석 756 홍종흠 757 설동규 758 정낙진
759 김정현 760 전태봉 761 김윤영 762 김중규
763 방인호 764 전두근 765 조진환 766 류영운
767 류태수 768 송준영 769 장익준 770 이광덕
771 강미경 772 이인철 774 정환록 775 장찬규
776 이승엽 777 송영철 778 최옥남 779 박길용
780 배석록 781 유나겸 782 조만수

◎ 영가등 올린 분 (복위자)

73 서정수 74 서규선 75 한승욱 76 이승빈
77 권현구 78 이길우 79 이은자 80 이광순
81 이광순 82 자윤스님 83 안준영 84 권상구
85 김화자 86 김인수 87 김수라 88 이현국
89 박윤자 90 박해진 91 백월순 92 이재학
93 장삼술 94 전숙환 95 전숙환 96 이현찬
97 박은정 98 이승재 99 김기효 100 김이규
101 박선미 102 김경숙 103 이지승 104 이창수
105 김정자 106 이기훈 107 김종태 108 이경화
109 조춘자 110 김영웅 111 김정윤 112 윤창환
113 신현국 114 노금채 115 이정옥 116 김외숙
117 박근호 118 김두성 119 김대철 120 최윤주
121 장승환 122 최창숙 123 김수용 124 이종현
125 김경현 126 장봉수 127 현무훈 128 임미옥
129 김성도 130 차미희 131 김소영 132 김소영
133 도경식 134 박해자 135 우성구
136 이숙 이경호 137 최재훈 138 김영애

◎ 단청등 올린 분

40 박원태 41 정안식 42 이승재 43 이재왕
44 김성훈 45 홍공덕심

◎ 대등 올린 분

20 대등 전산품(주) 21 원공업사
22 대구운불련 호출택시 회장 조신제 외 회원일동
23 권준훈 24 계해정 25 김진성 26 지성산업
27 부창떡집 28 삼성고속 29 최창덕 변호사
30 청구도시락 31 청소번지
32 (주)한도피엠씨 한도산업 33 수성파라다이스
34 삼신유업 35 가창참숯가마 36 금오불상

◎ 대등(2) 올린 분

15 김봉식 16 구점서

◎ 본당 대등 올리신 분

3(주)살엌

◎ 본당 일년등 올리신 분

13 서영록	14 이상봉	15 김종열	16 우종원
17 김철원	18 양문갑	19 양영갑	20 김봉조
21 김봉원	22 강상우	23 조철희	24 박종옥
25 강현주	26 김치희	27 박을수	28 윤도영
29 서재욱	30 김윤근	31 장기란	32 김혜정
33 김돈수	34 전태영	35 백창운	36 박광용
37 권하연	38 차태원	39 이종석	40 이광덕
41 김종철	42 김동건	43 김태식	44 김옥순
45 백이도	46 정선훈	47 박철환	48 김정선
49 김장철	50 최수한	51 황준흠	52 김용래

◎ 초파일등 올리신 분

19 하경순	20 박종연	21 권상구	22 권기환
23 권봉환	24 장삼술	25 이한국	26 전효환
27 이팔윤	28 이범일	29 박의건	30 도종신
31 김상한	32 류재달	33 황준녕	34 서호영

35 조영석 36 권태호 37 권동오 38 김철환

39 최암웅 40 이수희 41 배용호 42 이창식

◎ 꽃등 올리신 분

138 정우득 139 박영근 140 한재경 141 전재술
142 김상원 143 이희로 144 권순경 145 김영원
146 남정오 147 김수연 148 김경희 149 김기덕
150 윤창환 151 박진석 152 류윤만 153 최지애
154 박종화 155 이승희

왕생극락하옵소서

- ◆ 卍박영훈 영가의 기제사가 5월 4일에 있었습니다.
- ◆ 卍황용준 영가의 기제사가 5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卍강분자 영가의 막제가 5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卍제갈도환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卍가금현 영가의 초제가 5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卍오문환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卍박삼봉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 卍문종석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법왕사 거사림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남성 불자들의 모임인 거사림 회원을 모집합니다. 법왕사에 재적 중인 거사(남성 불자)이면서 신심이 깊고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사림이 결성되면 매월 두 차례 정기법회를 가지며 연중으로 사찰 순례법회나 기타 수행,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뜻 있는 거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거사림 법회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저녁 7시 법왕사 대적광전

해오름 요양원 5월 소식



부처님오신날

5월 3일(음4. 8)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왕사에서도 봉축법요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몇몇분들도 4층 법왕사 법당에 이동하셔서 행사에 참석하시고 행사가 끝나고 점심식사 후 요양원 앞마당에서 산책도 하셨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에는 법왕사를 방문한 신도들로 북적였지만 어르신들은 사람들을 구경하시는 즐거움에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경로잔치

2017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법왕사에서 어르신초청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지하 강당에서 1부와 2부 공연까지 흥겨운 한 마당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흥에 겨운 어르신은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두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사세요.



소방훈련

직원 및 수급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소화기 사용방법, 대피훈련까지 미리 해봄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보다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요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축탁의 방문진료

축탁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진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우리 어르신들은 그 누구보다 좋아하십니다. 작은 질병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양원 전 직원들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약속드립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써포터즈(야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4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라 1만원	노수정 1만원
강선옥 5만원	김수자 1만원	도순자 5천원
강소남 5천원	김숙희 1만원	독고보검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순덕 1만원	류윤만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순연 5천원	박경자 5천원
고재옥 2만원	김순태 1만원	박귀분 1만원
구정대 2만원	김양순 1만원	박남희 3만원
권계화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대희 5천원
권순득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동규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상용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외환 1만원	박성국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성용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원형 3만원	박성은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임태 5천원	박성후 2만원
권오국 1만원	김정규 5천원	박수진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정숙 5천원	박순남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정숙 5천원	박순영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순 3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김경호 1만원	김정임 1만원	박인철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자 5천원	박정묵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주현 1만원	박종규 2만원
김대현 5천원	김진성 1만원	박종환 1만원
김만기 5천원	김진현 1만원	박치민 5천원
김명옥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희조 5천원
김미자 1만원	김진현 2만원	반룡사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현 40만원	배수현 2만원
김미희 1만원	김진현 5만원	배하수 1만원
김민주 1만원	김진현 5천원	사공관 2만원
김봉숙 5천원	김혜자 5천원	서동남 1만원
김성의 1만원	남기웅 1만원	서치경 1만원
김수곤 5천원	노귀자 5천원	서호정 2만원

석종순 2만원	이병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성인자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숙 1만원
손수경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명선 2만원
손수연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무시 1만원
송민경 1만원	이성자 1만원	정미화 1만원
송정숙 5천원	이성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시명숙 1만원	이승환 5천원	정숙자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순옥 1만원
신동식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세호 1만원	이유태 1만원	정연이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옥선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임숙 2만원	정옥수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재봉 5천원	정차기 2만원
심규암 5천원	이전희 5천원	정태교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점예 2만원	정혜숙 1만원
안명희 1만원	이정숙 1만원	정활수 3만원
안인술 5천원	이정연 5천원	조규인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성자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정화 1만원	조영석 1만원
양봉률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인성 5천원
양지영 1만원	이정희 5천원	조정자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종희 5천원	조창신 2만원
양희숙 1만원	이준우 5천원	진봉희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창수 5천원	채옥연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채원 1만원	최분규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하예진 5천원	최승임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현옥 1만원	최영희 1만원
유경희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윤희 5천원
유명옥 1만원	이호조 1만원	최창숙 5천원
윤윤근 1만원	임상덕 1만원	한규배 1만원
이경자 1만원	임예숙 1만원	한희록 1만원
이남희 1만원	장성규 5천원	허유미 5천원
이명숙 1만원	장우성 1만원	홍기학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홍애분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찬규 5천원	홍유식 5천원

황미선 2만원 황지영 1만원
황준원 1만원 황학영 1만원

총합계 : 2,550,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홍기학 신홍준 문성섭 정인순 박경란 방지현
류혼자

◎ 자출내역

간식 구입비 : 459,160원
부식재료 구입비 : 1,642,600원
요양원물품 구입비 : 541,64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 22,000

총지출 : 1,983,120원

-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서순연 어르신 보호자 : 파운트케익 2개
장해원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2손, 요플레 40개,
아쿠르트 25개, 초코바 1
봉, 커피 1통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아쿠르트 45개, 카스타드 2통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2손, 박카스 2박스,
토마토 1박스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 자장면 30그릇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자장면 20그릇, 박카스 1박스
이갑석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박스, 딸기 1박스,
아쿠르트 45개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1박스

정판임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50개
김길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바나나 1박스, 커피 1통
김태분 어르신 보호자 : 치킨 3통
이재희 어르신 보호자 : 배지밀 1박스
임병수 어르신 보호자 : 빵 70개, 음료수 3박스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몽של 2통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아쿠르트30개, 딸기1팩
방지현 보살 : 아쿠르트 50개, 요플레 100개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윤봉한 어르신 임병수 어르신 채용자 어르신
최태희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
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
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강선옥 원장

5월 11일 : 질식, 중독 사고예방교육 참석

5월 25일 : 2017년 제1회 사회복지자원봉사자
관리자 교육 참석

● 인사

이상혁 사회복지사 : 복지팀장

이효조 요양팀장 : 총괄팀장

김명옥 요양보호사 : 1층 담당 팀장

최승임 요양보호사 : 2층 담당 팀장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양순 요양보호사 자녀 김민서 양의 결혼식이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
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
의는 법왕사 중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 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
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 씨포터즈와 함께 하는 나들이

씨포터즈 나들이 봉사단들과 함께 가창녹동서원에 갑니다.

일시 : 2017년 5월 28일(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2017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및 피크닉데이

본원에서는 2017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비롯하여 어르신들과 그 가족, 직원 및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피크닉데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푸르른 잔디밭에서 힐링을 체험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6월 6일(화) 오후 2시 ~ 6시

장소 :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잔디밭

※ 소정의 참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일거리 겸 취미생활로 농사일에 관리자가 되어 물도 주고 사랑도 주며 정성껏 키우고 있습니다. 면회 다녀가시는 길에 부모님이 정성껏 관리하고 계신 화초에 사랑의 눈길로 영양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4층 대적광전 오백나한상 봉안 모연문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후불로 5백나한상 봉안을 모연하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는 성자를 이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 하는데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당송(唐宋)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신앙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복을 주는 '복전(福田)'의 의미로 추앙받으면서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복전인 나한상 봉안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4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7년 정유년 들어 두번째인 제34회 백고좌법회를 6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4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합장



● 1일차
6월 13일
입재법문
지오스님
범어사 교수사



● 6일차
6월 18일
특별법문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 8일차
6월 20일
특별법문
화량스님
부산 동명불원 주지



● 10일차
6월 22일
특별법문
혜능스님
울산 람림학당 주지

◆ 일시 : 2017년 6월 13일 ~ 9월 20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6월 13일 困	지오스님	범어사 교수사	7일차	6월 19일 困	도산스님	범어사 금강암 총무
2일차	6월 14일 困	반산스님	양산 원각사 주지	8일차	6월 20일 困	화량스님	부산 동명불원 주지
3일차	6월 15일 困	덕문스님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장	9일차	6월 21일 困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4일차	6월 16일 困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10일차	6월 22일 困	혜능스님	울산 람림학당 주지
5일차	6월 17일 田	정원스님	봉선사 능엄학림학장	11일차	6월 23일 困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6일차	6월 18일 田	연담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12일차	6월 24일 田	실상스님	대구 법왕사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